

# 싱크홀 전조 ‘공동’ 광주 141개...전국 2위·광역시 1위

〈空洞·땅속 구멍〉

최근 5년간 전국서 872개 확인  
시 발견 중 조치 완료 25건 그쳐  
정준호 의원 “철저한 관리” 촉구

최근 5년간 광주에서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이자 전조 증상인 공동(空洞·땅속 구멍)이 107개 넘게 발견됐으나, 복구가 완료된 건 극히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지하 탐사에서 총 872개의 공동이 발견됐다.

공동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219개)였다. 그 뒤는 광주(141개), 경남(136개), 대구(77개), 경북(64개), 인천(43개), 충북(40개), 전북(31개), 강원(25개), 부산(23개) 등이었다.

광주의 경우 광역시 중 최대 발견 지역이었으나, 보수 등 조치가 완료된 건 17.73% 수준인 25건에 그쳤다.

이는 전국 공동 보수율인 54.9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116개의 공동이 시한폭탄처럼 시민의 발길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지

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공동은 크기에 따라 긴급(4㎡ 이상)·우선(1㎡ 이상~4㎡ 미만)·일반(□외)으로 나뉜다.

같은 매뉴얼에선 긴급은 발견 즉시, 우선은 3개월 이내, 일반은 6개월 이내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동은 주로 ▲노후 하수관로 ▲상습 침수지역 ▲지하철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견되는데, 지반이 물을 머금거나 빈 공간이 늘어날 경우 토사가 유실돼 싱크홀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은 지하 배수로 터널 공사 때문으로 각각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동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게 정 의원 진단이다.

또 정 의원은 ‘소극 대처’의 이유로 현행법상 국토부가 지자체와 관리 기관에 보수·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정준호 의원은 “싱크홀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자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이라며 “공동 발견 후 조치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통보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로 싱크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싱크홀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지자체가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지난 11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최후의 시민군 故 정해직 선생 민주장 영결식’에서 자녀 정강모씨가 안장식 중 허토를 하고 있다. /주성학기자

## ‘전남도청 사수’ 5·18 시민군 잇따라 동지들 곁으로

민원부장 정해직씨 11일 민주장 민주묘지서 100여명 고인 배운 앞서 사진작가 김향덕씨도 별세 생존자들 “승고한 희생 왜곡 허탈”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전남도청을 사수한 시민군들이 최근 잇따라 먼저 떠난 동지들의 곁으로 갔다.

지난 11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에선 ‘5·18 최후의 시민군 故 정해직 선생 민주장 영결식’이 열렸다.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은빛참교사회, 흥사단 광주지부 등 9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영결식은 ▲애국의례 ▲인사말 ▲약력보고 ▲유모사 ▲유가족 인사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 ▲안장식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에 참석한 5·18광주민중항쟁 최후의 시민군 동지회 회원들과 시민 등 100여명은 고인의 생애를 기리며 영면을 기원했다.

보성 출신인 정 선생은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80년 5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목격하고 항쟁에 참여했다.

이후 시민군 민원부장으로 활동하며 윤상원 열사 등과 함께 ‘민주수도 범시민 쉼터대회’의

대외문 작성에 참여했다. 최후 항전일인 5월27일에는 도청에 남아 저항하다 체포돼 고문과 구타를 당했고 내란중요인무종사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아 10개월간 복역했다.

석방 이후에는 시민군 동지회 초대회장과 5·18기념재단 후원회장 등을 맡으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왔고 지난 9일 향년 75세로 별세했다.

앞서 지난 10일 옛 전남도청에선 ‘5·18 소년 시민군’으로 불렸던 김 향덕 사진작가의 장례가 민주장으로 치러졌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이던 그는 투사회보팀의 일원으로 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인쇄·배포 작업에 참여했다.

그러다 5월27일 YWCA 회관에서 계엄군에 맞서다 체포됐고 상무대 영창에서 고문을 받았다.

석방 후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해서 졸업한 뒤로부터 그는 카메라를 들고 5·18 현장과 사적지를 기록해왔다.

그러다 고문 후유증으로 앓던 파킨슨병에 의해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김 사진작가는 지난 7일 향년 62세로 별세했다.

정 선생과 김 사진작가와 함께 최후 항전일에 전남도청을 지킨 시민군 250여명 중 19명은 당시 현장에서 숨졌다.

생존자 중 40여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앞서 숨

졌다. 남은 이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층인데, 지독한 병마보다 끊이지 않는 ‘왜곡·훼손’ 시도가 힘들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영성 5·18광주민중항쟁 최후의 시민군 동지회 부회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친 동지들의 승고한 희생이 왜곡되는 현실에 허탈한 마음을 지을 수 없다”며 “5·18의 진실과 가치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윤천우수습기자

### 장성서 80대女 승용차에 치여 숨져

장성 한 길거리에서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1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59분께 장성군 장성읍 한 삼거리에서 A(80대·여)씨가 승용차에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깔려 크게 다친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B(70대·여)씨는 당시 우회전을 하던 중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과 A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재영기자

## 납품파기 농민에 위약금 2배 청구...“과한 요구”

법원, 전남 모 지역농협 항소 기각

배추값이 폭등하자 계약한 납품처 대신 다른 곳에 전부 판매한 재배농을 상대로 지역농협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1부(박종환·박희정·정윤원 부장판사)는 전남의 모 지역농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해야 할 위약금으로 농협 측이 임의로 주장하는 금액이 아닌 서류에 명확히 기재된 만큼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국내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에서 배추밭을 일구며 지역농협인 원고와 겨울배추 계약재배 약정을 2021년 체결했다.

그해 겨울 배추값이 30~50% 폭등하자 A씨는 농협과의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게 배추를 전량 처분했다.

농협 측은 배추 납품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을 A씨에게 청구했고,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농협이 요구한 금액은 계약 파기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계약금의 2배 규모였다.

하지만 농협과 A씨가 체결한 약정서에는 계약해지 시 지급할 위약금으로 계약 금액의 40%가 명시돼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계약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미리 정해뒀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재영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